

“봉사하고 우정 쌓으며 보낸 알찬 1년”

진행 · 글 **채승웅** 작가 / 사진 **송은지** 핀스튜디오



2014년 정담회를 이끈 임원들이 설립자 사진 앞에서 활짝 웃고 있다. 왼쪽부터 김수중, 양명한, 엄지연, 최윤주, 손희민, 배곽진 학생

아산장학생들의 모임인 정담회를 2014년 한 해 동안 이끌어 온 제37기 임원진이 지난 1월 말 아산재단 회의실과 아산홀에 모였다. 그들은 지난 1년 동안 아산장학생들의 활동을 돌아보고 스스로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아산장학생으로서의 긍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양명한(25 · 아주대 미디어학과 3) 회장, 배곽진(24 · 영남대 섬유신소재공학과 4) 부회장, 엄지연(21 · 이화여대 컴퓨터전자공학과 3) 총무부장, 최윤주(21 · 성결대 사회복지학과 3) 총무부장, 손희민(21 · 성신여대 성악과 3) 봉사부장, 김수중(21 · 한라대 산업경영학과 3) 친목부장 등 6명이었다.

진행 : 1년 동안 정담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기억에 남는 일은?

양명한 : 2014년 초 37기 임원진이 발족했을 때 새로운 활동을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 무엇보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봉사활동과 나눔 행사를 기획했다. 2014년 3월에는 경기도 안성의 신생보육원에서 봉사했고, 9월에는 금천구청 장애인복지관에서 주최한 바자회에서 일손을 도왔다. 12월에는 나눔 일일호프를 열어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나는 특히 9월에 나간 장애인복지관 봉사활동이 기억에 남는다. 이날 인형탈을 쓰고 장애아동들과 즐겁게 어울렸다. 더운 날씨였지만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배곽진 : 정담회 활동을 하기 전에는 친구관계가 한정되었고, 세상을 보는 시야도 좁았다.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다. 장학생으로 참여할 때는 몰랐는데 임원이 되어 많은



간담회에서 2014년을 돌아보고 있는 임원들. 왼쪽부터 엄지연 총무부장, 양명한 회장, 최윤주 총무부장, 배곽진 부회장, 김수중 친목부장, 손희민 봉사부장

일을 기획하다 보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임원 활동하며 지난 1년간 더 성숙해졌다.

김수중 : 12월 27일 정담회에서 주최한 나눔 일일호프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2014년 초 임원진이 처음 모여 여러 행사를 기획했을 때 장난스럽게 꺼낸 말이 발단이 되어 일이 커져버렸다. 행사 후에는 수익금 180만원을 청소년쉼터에 기부했다. 처음이라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아산장학생들이 모여 의미 있는 일을 해냈다는 성취감이 컸다.

손희민 : 나도 나눔 일일호프가 기억에 남는다. 우리가 장학금 혜택을 받은 것처럼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들도 훗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준비한 것보다 참여가 적었고, 테이블도 부족해 아쉬웠지만 다음에 보완하면 좋은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최윤주 : 나는 농촌봉사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준비할 거리가 많았고, 봉사 장소인 충북 제천에 가서는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등 고생도 많이 했다. 그래도 회장, 부회장 오빠들이 도와줘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진행 : 1년 동안 보람 있었던 일과 아쉬운 일은?

손희민 : 정담회에서 울산으로 산업체 견학을 갔는데, 성악과에 재학 중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됐다. 영빈관이라는 큰 무대에서도 노래를 불렀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

아쉬운 점은 정담회의 소식지인 <정담지>를 만들기 위해 장학

생들에게 원고를 부탁하고 있는데, 쓰겠다는 학생이 많지 않아 힘들었다.

엄지연 : 임원을 맡기 전에는 집과 학교를 오가는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총무부장 일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매달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 다만 임원 일에 몰두하다보니 선후배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 행사 진행에 바빠 사람들 속에 녹아들지 못한 것은 아쉽다.

진행 : 아산장학생으로서 금지를 느낄 때는 언제인가?

배곽진 : 항상 금지를 느끼고 있다. 아산장학생이라면 누구나 그럴 것이다. 우리는 다른 장학회와 달리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있는 전국의 포레 학생들이 모일 기회가 자주 있다. 어떻게 보면 장학금보다 전국에 형성되는 인맥이 더 큰 혜택인 것 같다. 한번은 아산재단 사무총장님께서 “재단에서 장학생들을 위해 더 해줄 건 없는가?”라고 물어보셨다. 그때 ‘아, 진짜 학생들을 위해 주시는구나’라고 느꼈다.

양명한 : 다른 장학회를 보면 보여주기 식의 지원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정담회는 학생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아서 지원해준다. 작은 것 하나까지 보살핌을 받을 때, 정담회라는 울타리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 장학생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진다.

손희민 : 학교에서 아산장학생이라고 하면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한다. 특히 아산장학생이 되고 싶어 지원하는 후배들을 볼 때 아산장학생으로서 금지를 느낀다.



정담회가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길 기원하며 2014년도 임원들이 설립자의 친필 액자 앞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

진행 : 아산재단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최윤주 : 농촌봉사활동이나 만남의 장 같은 행사는 충분히 지원받고 있다. 앞으로 장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면 그런 행사에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엄지연 : 지난해 초 각 지역의 지부장을 뽑았다. 하지만 지부장들이 회의 때마다 차비와 숙박비를 들여가며 서울로 올라오기 어려워 나중에는 유명무실해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생들 사이의 거리를 줄일 수 있도록 아산재단에서 지원해주면 좋겠다. 가령 행사가 있을 때 서울아산병원 기숙사를 개방해 준다면 지방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진행 : 2015년 새로운 임원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양명han : 장학금 지원이라는 혜택을 받는 만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기획했으면 좋겠다. 기발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로 멋진 행사를 많이 만들어 아산장학생들이 더 큰 긍지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배곽진 : 우리 장학생 중에는 아산재능나눔장학생이 있다. 하지만 어떻게 재능을 나누어야 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 선배 재능나눔장학생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면 더욱 다양하고 좋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진행 : 앞으로의 계획은?

최윤주 :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데, 의료사회복지사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취업준비를 하면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이다. 가능하다면 서울아산병원 같은 큰 병원의 사회복지팀에서 일하고 싶다.

양명han : 미디어학부에 재학 중인데, 앞으로 라디오PD가 되

고 싶다. 그 전에 아산서원 프로그램에 지원해 인문학과 관련된 시야를 더 넓히고 책도 많이 읽을 계획이다. 광고 공모전도 준비하고 있다.

엄지연 : 나도 4학년이 된다. 원래는 공부만 했는데 정담회 활동을 하면서 사람 만나는 게 좋아져서 봉사활동 등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싶다. 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다.

손희민 : 성악과에 재학 중이어서 1학기에는 당장 오페라 공연을 준비해야 한다. 2학기에는 졸업연주를 준비해야 해서 학교 행사만으로도 1년이 금방 갈 것 같다. 나중에 성악가,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다.

김수중 : 곧 입대해야 하는데, 군복무 전에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다.

배곽진 :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다. 나중에 해외의 앞선 지식을 배워서 국내에 전하고 싶다. 장학회 활동을 하며 쏟아 부은 열정을 이제 대학원에서 전공 관련 공부에 집중하겠다.

진행 : 2015년 새로 아산장학생이 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김수중 : 정담회는 각 지역에서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모인다. 성적별로, 지역별로 나뉘는 다른 장학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친밀감이 강하다. 처음 모임에 참석해도 부담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 누군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줄 것이다. 그때 마음을 살짝 열어주기만 하면 된다. 선배들 말에 따르면 정담회에서 평생 친구를 사귀었다는 분들이 많다. 후배들도 정담회 활동을 열심히 해서 좋은 일도 하고 평생친구도 사귀면 후회 없는 대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양명han : 아산장학생이 되면 장학금만 받는 게 아니라, 정담회 활동도 열심히 해야 한다. 정담회는 술 마시고 노는 모임이 아니다. 우리가 아산재단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만큼 정담회 활동을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해야 한다. 정담회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활동을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 아산재단이 존재하는 이유, 아산장학생으로 선발된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 ☺